

그리스도인 02.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Christian 02. What can tell if you are a Christian or not?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1.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다.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죄로부터 건져져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죄의 형벌(the punishment for sin)로부터 벗어나 오늘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요일 1:7)

여기 정결하다(cleanseth)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다.

-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그는 죽은 뒤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능(the power of sin)로부터 자유로워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람이다. 물론 그래서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 죄의 지배가 끝났다고 믿고 죄가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혹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근심한다. 괴로워한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셨기에 그분으로 인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죄들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2.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면 그리스도인이다.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不和)상태에 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청산하고 더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

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다.(롬 5:1)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적대관계의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가깝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동행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본다. 에녹(창 5:24), 노아(창 6:9)가 그랬다. 그들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께 맞추어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3.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주(Lord)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 권위자로 믿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권위자들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또 회사에서의 상사, 통치자 등이 그 권위자들이다. 그들 모두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다.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할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그들의 의견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모신 것이다.

예수님을 구원자(Saviour)로 믿는 것은 그 자신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다.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로 자신이 죄에서 건져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죄인이었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다.

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벧후 1:11)

이외에도 베드로 후서 2장 20, 3장 18절은 모두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Lord and Saviour)로 표현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셨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다녀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